

오피니언

월/요/광/장

고현석



지방자치체 두고 '발로하는 투표'라는 말이 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얼마든지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야말로 그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총체적인 지표라는 뜻일 것이다. 필자는 낙후된 전라도 농촌의 군수로서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했지만 '발로하는 투표'에서 실망스런 평가를 받은 늘 씁쓸했었다.

지방자치체 두고 '발로하는 투표'라는 말이 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얼마든지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야말로 그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총체적인 지표라는 뜻일 것이다. 필자는 낙후된 전라도 농촌의 군수로서 지역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했지만 '발로하는 투표'에서 실망스런 평가를 받은 늘 씁쓸했었다.

일자리와 자녀교육

지역 상향할 수 없는 혁명적 사건이라면 서 학교 신축시설비로 609억 원의 특별 지원을 결행하였다. 2003년도의 일이다. 특혜시비가 일어나자 같은 조건으로 전국에 공모를 했었지만 어느 곳도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들었다. 아무리 교육시설이 좋아도 이는 수단일 뿐이다. 곡성의 군민들이 광주로 이사 가지 않고 자제를 곡성의 학교에 보낼 마음을 먹도록 하려면 실제의 입시제도에 비추어 실용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장학금, 기숙사, 학원운영 등 자녀교육지원

지역 상향할 수 없는 혁명적 사건이라면 서 학교 신축시설비로 609억 원의 특별 지원을 결행하였다. 2003년도의 일이다. 특혜시비가 일어나자 같은 조건으로 전국에 공모를 했었지만 어느 곳도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들었다. 아무리 교육시설이 좋아도 이는 수단일 뿐이다. 곡성의 군민들이 광주로 이사 가지 않고 자제를 곡성의 학교에 보낼 마음을 먹도록 하려면 실제의 입시제도에 비추어 실용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다. 장학금, 기숙사, 학원운영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에 24억 원 가까운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된다. 마침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생겼기에 이를 전액 자녀교육에 쓰고자 했었는데, 제동이 걸렸었다. 자녀교육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있는 활력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지름길이라는 항변을 하고서야, 그 절반을 교육지원에 쓰는 선에서 타협할 수 있었다. 세월이 걸리겠지만, 곡성에서 자녀교육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는 날에는 기업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일자리가 생겨 날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였다.

이와하고 효과가 큰 사업에 주력하였다. 돈은 군이 대지만 행동은 학교의 몫이므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 성과를 기초로 조례로써 제도화할 속셈이었는데, 그럴 기회를 갖지는 못한 채 군수자리를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곡성의 고등학교가 명문으로 발돋움했다고 하니 고맙고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굳히면, 우선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곡성에 직장을 두고 광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 본다. 그런데 안정된 제도로 뒷받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다. 꾸준히 굳힐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농촌의 자녀교육 문제가 어찌 자구적 노력만으로 해결되겠는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예고되었던 수능의 등급화는 농촌 교육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건강성을 불어넣을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시행 한번 못해보고 철회해 버린 교육정책에 몹시 화가 치민다. 이런 국가적 제도개선의 효과에 비하면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라 그 효과가 미미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은 제도만을 탓하면서 포기해버릴 수는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그래서 꾸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전 곡성군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이승욱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서남권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가 최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국토성장 축조상을 위해서는 남해안 선벨트와 서해안 신산업벨트가 교차하는 서남권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토론회에서는 여섯바탕과 F1대회 지원, 섬 개발 등 해양관광 개발, 풍력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연륙·연도교 건설 등 국가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정책과제 14건을 도출해 정부에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서남권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가 최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국토성장 축조상을 위해서는 남해안 선벨트와 서해안 신산업벨트가 교차하는 서남권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토론회에서는 여섯바탕과 F1대회 지원, 섬 개발 등 해양관광 개발, 풍력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연륙·연도교 건설 등 국가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정책과제 14건을 도출해 정부에

서남권 발전이 국가경쟁력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지역민들 또한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다'는 기대와 함께 건의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국장급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했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현안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경전문가, 교수 등 지역인 300여 명은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즉석토론에 참여하는 등 서남권 개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열기와 의지가 충분히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F1 대회의 성공개최 이후 지역 현안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정부가 먼저 토론회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토론회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지역민들 또한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다'는 기대와 함께 건의된 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국장급들이 토론회에 대거 참석했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현안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경전문가, 교수 등 지역인 300여 명은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즉석토론에 참여하는 등 서남권 개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열기와 의지가 충분히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F1 대회의 성공개최 이후 지역 현안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정부가 먼저 토론회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물론 토론회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기고

장현석



저는 무안 남암초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제게 자동차 장난감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자동차 장난감과 함께하면서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고 직접 운전을 해 보고 싶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F1 자동차 경주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자원봉사자가 홈페이지를 신청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실컷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를 어머니께 같이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원봉사자는 자동차

저는 무안 남암초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제게 자동차 장난감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자동차 장난감과 함께하면서 진짜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싶고 직접 운전을 해 보고 싶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F1 자동차 경주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자원봉사자가 홈페이지를 신청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을 실컷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를 어머니께 같이 신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원봉사자는 자동차

자원봉사 '꿈' 심어 준 F1대회

경주를 구경하는 것보다는 F1 자동차 경주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재미보다는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신청하겠다고 하여 같이 신청서를 내었는데 자원봉사자로 뽑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날, 저 말고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형, 누나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일할 곳은 현장안전통제실로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같이 일하게 되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F1 자동차 경주대회 3일 동안은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경주를 구경하는 것보다는 F1 자동차 경주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재미보다는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신청하겠다고 하여 같이 신청서를 내었는데 자원봉사자로 뽑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날, 저 말고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형, 누나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일할 곳은 현장안전통제실로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같이 일하게 되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F1 자동차 경주대회 3일 동안은 정말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료 너무 비싸 강력한 행정지도 필요

최근 일부 주요 사립대학들이 곧 실시될 대학 정시모집 전형료를 작년보다 1만 원 내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사실상 대학들은 그동안 입시를 치르며 비싼 전형료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줬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에 '올머겨 자막'이 또 적게는 3~4만 원에서 많게는 9~10만 원의 전형료를 내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2~3차례의 전형을 치르는 것을 감안할 때 10~30만 원이 넘는 비용이다. 대학입시는 각 대학들이 매년 치르는 학사입정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정시와 수시 등 2~3차례의 입시를 치르

며 전형료 수입으로 각종 인쇄비와 입시홍보비, 시설경비 등을 충당해왔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백억 원대에 이르는 수입이 생긴다고 하니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상아탑인 대학이 이래야 되겠는가.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고 조정해야 할 교과부는 별 대책도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하다. 교과부는 당장 전형료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원가 실사를 통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전형료만 부과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에 나서야겠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시설

한미 FTA 지역경제 득실 잘 대처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굴욕적인 패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윈-윈 원칙'을 지킨 절편 협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양상을 둘러싼 격한 논쟁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써 정국은 빠른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여당과 비준 거부와 함께 국민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양당 간의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협상을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실현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조항 등 온갖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해 놓고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굴욕적인 패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윈-윈 원칙'을 지킨 절편 협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양상을 둘러싼 격한 논쟁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벌써 정국은 빠른 국회비준을 주장하는 여당과 비준 거부와 함께 국민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는 양당 간의 충돌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협상을 철저히 경제적인 논리로 실현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지난 2007년 체결한 협정문에 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조항 등 온갖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해 놓고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양

광주·전남 '6·2선거사범' 전국 최고라니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광주와 전남의 선거사범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소사건 단위로 지난 2월 1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905명으로 전국 4614명의 19.6%에 달했다고 한다. 인구 10만명당 선거사범 수 역시 27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무려 5배가 넘는다. 검찰청 단위별로는 광주와 나주, 담양 등 6개 시·군을 담당하는 광주지검 본청은 318명을 입건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비슷한 규모의 대구지검 208명, 수원지검 164명 등을 훨씬 앞지른 것이다. 사실 6·2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포함한 선거전에 따라 금품과 향음, 흑색선전이 난무한데다 소지여주의까지 가세해 극심한 불·탈법 양상을 보였다.

이해 민주당의 '진흙탕' 경선으로 인해 각 후보 진영마다 고소·고발을 일삼고 상대후보에 대한 '흑색 루머'를 무차별 퍼트린 게 주요 요인이다. 또한 민주당의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줄세우기' 공천에 반발해 집단 울직임을 보인 무소속 풀동초 과열 양상을 부추겼다. 유권자들 역시 불법선거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금품과 향음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니 말이다. 자치단체장의 비리는 사법 처리와 함께 재선거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광주 서구가 재선거를 치렀고 화순군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선거 비용만 수억원에 달했고 결국 주민의 혈세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동안 불·탈법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전남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無等鼓

매음을 팔며 살아간 한 백성이 돈 5개를 들고 곤장 7대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섰다. 사령(使令)은 그가 번번이 나타나는 것이 알미워 곤장을 흑흑하게 내리쳤다. 견뎌낸 재간이 없었던 백성은 다섯 손가락을 꼽아 보았다. 5개의 돈을 뒤로 바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못 본 척하고 더욱 심하게 매질을 하자 재빨리 다섯 손가락을 다시 펴보았다. 뒤로 먹이는 돈을 배로 올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매는 아주 얹혀졌다. 백성은 관아를 나와 사람들 앞에서 뽐냈다. "내가 오늘에야 돈이 좋은 줄 알았네. 돈이 없으면 오늘 나는 죽음이 사람이었지" 조선 후기 학자 성대중의 '정성잡기'(靑城雜記)에 나오는 민간 설화의 일부다.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삶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매품팔이(代杖)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른 한 편은 아내의 지나친 욕심 탓에 매품을 팔아 재물까지 모아 보러다가 죽

매음을 팔며 살아간 한 백성이 돈 5개를 들고 곤장 7대를 대신 맞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섰다. 사령(使令)은 그가 번번이 나타나는 것이 알미워 곤장을 흑흑하게 내리쳤다. 견뎌낸 재간이 없었던 백성은 다섯 손가락을 꼽아 보았다. 5개의 돈을 뒤로 바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못 본 척하고 더욱 심하게 매질을 하자 재빨리 다섯 손가락을 다시 펴보았다. 뒤로 먹이는 돈을 배로 올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때부터 매는 아주 얹혀졌다. 백성은 관아를 나와 사람들 앞에서 뽐냈다. "내가 오늘에야 돈이 좋은 줄 알았네. 돈이 없으면 오늘 나는 죽음이 사람이었지" 조선 후기 학자 성대중의 '정성잡기'(靑城雜記)에 나오는 민간 설화의 일부다.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삶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매품팔이(代杖)를 소재로 한 두 편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른 한 편은 아내의 지나친 욕심 탓에 매품을 팔아 재물까지 모아 보러다가 죽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문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